

1. 종교다원주의 배경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218호
3월 4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301-0153-7296-01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6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동성결합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규탄 긴장 조성 북한 핵 도발... 한미 동맹 강화로 저지

교단 제71차 총회 제5회 임원



예측 총회장
김병목 목사

교단 총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1차 총회 제5회 임원회가 지난 2월 16일(목) 오전 11시 대만법원교회(대만) 조선남 목사)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을 결의했다.

이날 회에서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장진규 목사의 사 회로 시작되어 사기 임형은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 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변전 4:10-11 말씀을 본문으로 '전환 창치가 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창치기들로서 패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창치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창치기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창치가는 자기의 주성이다. 자기의 생명을 고집하 게나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창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며 임원들을 축복 했다.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 바로 회에서 들어가 사기 임형은 목사의 회원점령,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보고 사정으로

총무 장진규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지난 2월 6 일(월) 2023년도 목사교회가 치러져 일부 재시합과 정을 거쳐 모두 합격하였음을 보고했다.

이어서 재무 박정자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진남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 으로 교역자복지 창립, 교단주조변경 교회명칭변경, 교역자 은퇴 보고서 등 결의되었다.

이어서 일반 하나님의교회 교단과 본 교단과의 선 교협력을 위해 총회장 김병목 목사, 국제총회장 심용 재 목사, 교단 사기 결 선교교역 임형은 목사가 일본

을 방문하여 선교협력사업을하기로 했음을 보고하고, 2023학년도 예산서 사이버시화연구원, 목회대학원 이 3월 6일(월) 개강하는 것과 제71차 총회 제2회 실 행위원회가 3월 16일(목) 오후 1시 은혜대리교회 이가 비전전에서 개회됨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동성결합 건강보험 피 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끊임없이 평등을 유지하여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 지법을 제정 자치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해치며 극 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북한의 핵 도발이 막히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강화와 연대적으로 가 는 상황에 비상상태가 감행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최전 향된 교역자를 바로 잡아 바른 교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값을 수 없는 빛과 값기를 힘써야 할 빛’

“...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롬 4:4-8, 1:14-15)



조용국 목사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빛지 않고서도 노력하 야 합니다. 그런데 빛이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값을 수 없는 빛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힘써 가야 할 빛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값을 수 없는 빛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두새 편파는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담긴 중요한 요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발한 인간의 상태를 빛진 상태로 설명 하였습니다.

이런저기 있는 죄악은 빛은 너무나 커서 어떠한 행위로도 그것을 값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책을 예비하 셧니다. 죄를 용서 받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 있습 니다. 첫째, 자신이 엄청난 죄의 죄를 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행위로는 죄의 빛을 하나님께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받으려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 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진 것이 죄 사함의 이르기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를 믿고서 여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빛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개념으로 설 명한다면 이런 빛의 행위로는 값을 같이 전 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용서받고 청산됩니다.

둘째, 값을 힘써야 할 빛에 대하여 살펴보습 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빛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 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연고이지 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있어서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도 수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 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 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예배드리는데 도움 을 주는 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 통신, 운송에 관계된 이들, 국가 안보와 직인을 위해 수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받은 방법은 많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기를 전하는 일이고,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한가는 사랑과 겸 의 인사를 마치 빛을 같이 할 채부터 시작하였 습니다. 바울이 밝히고 있는 빛은 특이한 성격을 지 니고 있습니다. 첫째, 이 빛은 같이 할 대상이 자신 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이 빛은 돈으로 계산되는 빛이 아닙니다. 셋째, 이 빛은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됩 니다. 넷째, 이 빛을 같은 일에는 신령한 기쁨이 따릅 니다. 다섯째, 이 빛을 같은 일에는 주님의 칭찬과 상 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 라” 하셨습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을 복음을 듣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유혹과 환락과 쾌락을 낙향한 잔디밭에 이기도록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며 불 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빛을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 으므로 값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 아니라 천사가 흠모하는 신분과 자위와 기쁨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야 할 때를 기다리는 줄기처럼 감사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들과 아울러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빛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比 하나님의성회 23개 지방 총회 지도자 회의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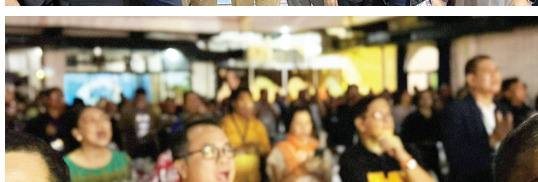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 정식 초청, 比 재난 도우미 감사의 뜻도 전해



필리핀 하나님의성회 23개 지방 총회 지방회장 및 임원들과 목회자 그리고 각국 선교사들이 모여 지 도자 회의(LAMI: Leadership and Management Institute)를 지난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로 하스 소재 한 필리핀하나님의성회 총회장 김부자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열려 선교보고비 및 초대되어 필리핀 하나님의성회 23개 지방총회 임 원들과 목회자 283명이 참석하여 2023년까지 10,000 개 교회 개척과 선교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매 시 간마다 예배를 통해 성령충만, 은혜충만 시간도 되었으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 졌다.

이날 모임에는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국제총 회임원 심용재 목사가 미국 하나님의성회 선교사들 (AGWF)과 함께 정식으로 필리핀 하나님의성회로부 터 초대되어 필리핀 하나님의성회 23개 지방총회 임 원들과 목회자 283명이 참석하여 2023년까지 10,000 개 교회 개척과 선교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매 시 간마다 예배를 통해 성령충만, 은혜충만 시간도 되었으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 졌다.

특히 필리핀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김부자 목



사는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교사들을 크게 환 영해 주었으며 지난해 필리핀 재해(지진) 오지 예수교대 한하나님의성회로 도움을 주고 아픔을 함께 했던 지 나 총회에 깊은 감사사를 전했으며 정례위원장 조용목 목사에게 감사인사와 안부를 전했다.

또한 새로 선출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장 김병목 목사도 임원들에게도 축하의 안부를 전했

다. 올해로 총회와 필리핀교회가 44주년을 맞이하 여 더욱 필리핀 복음화와 영혼들을 위해, 세계 선교 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교단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는 특별히 필리핀선 교과 복음화를 위해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열심 히 복음을 전파하는 필리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를 부리겠다고 말했다.

다. 올해로 총회와 필리핀교회가 44주년을 맞이하 여 더욱 필리핀 복음화와 영혼들을 위해, 세계 선교 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교단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는 특별히 필리핀선 교과 복음화를 위해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열심 히 복음을 전파하는 필리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를 부리겠다고 말했다.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집 1-3부재판장 이승환, 심준보, 김동호는 2023. 2. 21차 판결에서, 사실상 동성애를 인정하고 주장은 동성애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 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여, 1심에서 현행법 체계상 사 실혼은 남녀의 결합이고 동성간 결합까지 사실혼 개 념을 확대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취소했다(서울고 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가소28799 판결).

이러한 판결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 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따질 뿐 본질적으로 동

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적지향을 이유 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가정'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로 명명하여 규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동성가 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동성 결합의 당사자를 법률상 배우자(법률혼) 및 사실 혼'로 보겠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 적인 판결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 은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즉 '가정'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로 한정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간 가족관계로 인정하면 형제·자매와 법률혼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가정지 가족관 계를 근거로 동성간 결합을 함으로써 스스로 법원의 자격 을 내세우고자 하였다.

비록 건강보험법에서 '배우자'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각종 사회

무엇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 은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즉 '가정'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로 한정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간 가족관계로 인정하면 형제·자매와 법률혼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가정지 가족관 계를 근거로 동성간 결합을 함으로써 스스로 법원의 자격 을 내세우고자 하였다.

비록 건강보험법에서 '배우자'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각종 사회

보장법령(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는 '배우자'의 개념에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보험법 상으로 는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왔으며, 건강보험법 영역에서만 배우자의 정의를 두지 않았는 이유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 헌법과 법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오로 지 남녀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뿐, 동성결합을 법 률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사안이 없다. 현행 법 체계상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은 법률상 의 재제로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동성 간 의 결합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 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헌법 규정 양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들 부부,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 지칭하며 자녀에 대해서는 개념으로 부모를 사용하는 민 법 규정, 그리고 이러한 헌법과 민법의 수많은 규정들을 근거하여 '혼인'을 이성인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는 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 있다.

따라서 동성결합의 당사자들이 이 사건 건강보험 피 부양자 자격을 주장한다고 해도, 현행법 규정상 법률혼 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다른 어떠한 사정들 을 고려하여도 그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여 러에 따른 판단은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다르게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는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임으로 규탄 반박한다.

한편, 성적지향을 이유로 동성결합 당사자들을 대하 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 배된다는 취지의 판사로 남달라 수 없다. 성적지향은 현행법상 법적 정의를 존중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의 대 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일부 법원에서 성소수자 개념을 보아 도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등 감성적·정서적·이성

적으로 같이 이질될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 게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차별 요건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현행법상 동성 간의 결합과 명확하게 구별된 남 녀 간의 결합만이 직결한 혼인으로 인정되고 있어 동성 과 남녀를 달리 보는 것이 합당한 법 체계에서, 동성 간 의 결합도 남녀 간의 결합과 동일할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보면 차별이라는 반사효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하는 과도한 주장으로 보지 않 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 배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따 지 않고 가정의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입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 고 오로지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임으로 규탄 반박한다.

특히 동성애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당사자를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 고 이는 사회보장법상 배우자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이에 우리는 법과 양심을 재확인 이슬환, 심준보, 김 동호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판결을 지지하는 높 국민과 인민의 땅은 우리와 격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서울고등법원은 명백하게 할 것이다. 이 잘못된 판결에 대해 여서는 반드시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잘못된 판 결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대법원은 법치주의로 타 당하고 이차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2023. 2. 22.

복음들기교회, 진영진, 문보민, 복음들인교회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피해 지원

한국교회봉사단, 생존키트, 난방용품, 식료품 등 구호품 전달

한국교회봉사단(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이하 한교봉)과 튀르키예·시리아 긴급 긴급 구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2월 17일 (금) 오후 4시, 사랑의교회 8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특별히 무슬림국가와 내전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교회 지원 활동이 어려운 곳에 한국교회가 유엔난민기구 (UNHCR)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긴급지원 단계로 활동을 하게 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4시 30분에 17일 튀르키예로 출발하는 한국교회봉사단 실무진과 의료진(김영민 한국교회 공동취재단 파송장)을 기별했다.

파송식 이후 5시에는 한교봉 총재들과 회원교회 총회장등 재단 관련 해당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사업 진행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교봉은 지난 1월 29



일 명성교회에서, 16개 회원교회 협약을 통해 한국교회 의료진으로 재해지역성김사역과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공을 사역을 진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진행한 바 있다.

17일 파송되는 긴급의료진은 정근 장로(한국교회봉사단 의료지원단장)가 대표로 있는 그로터티스와 대지진으로 파괴된 안도국 교회가 있는 안타키아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

하여 긴급의료진의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난민 캠프가 있는 메르스 지역에서도 의료지원과 생필품, 난방용품, 식료품 등의 긴급구호품을 전달한다.

한국교회봉사단은 튀르키예 현지 한국인 사역자협의회와 함께 긴급의료진의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생존키트, 난방용품, 의료용품 등의 긴급구호품을 전달할 것이다.

2023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목회자유가족동기운동본부,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 당부

목회자유가족동기운동본부(회장 김진호 목사, 기감 전 감독회장)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기감분교에서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대학원생 2명, 대학생 11명, 고등학생 10명, 중학생 4명, 초등학생 5명, 유치원생 4명, 목회자 사모 1명 등 총 37명에게 4,864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감사예배 전달식은 사무총장 최우성 목사 사회로 박기성 목사(안산장광교회)의 기도, 최지훈 형제의 특별주례, 이용원 감독(수도교 위임장, 서울연합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이용원 감독은 사모 6-12 명을 본부로 '돈' 용사가 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들은 기도로 세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어라'라고 전했다.



이 감독은 계속해서 "기도로 세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과 기쁨이 되고 자비와 자애를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도로 세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사예배 사모, 최지훈 형제, 최지훈 학생 등 세 목사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우정철 목사(신남대교회)와 태동환 총무(본부 선교국)가 각각 격려사와 축사를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회장 김진호 목사는 장학금 전달에 앞선 인사말에서 "정경 다음으로 전도의 글이 담긴 탐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 세가지를 명심해 하나님이 귀히 들어쓰시는 영광을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튀르키예·시리아 위한 모금운동 진행

세기총, 제10-4차 임원회 개최

(사)세계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계총)는 지난 2월 10일(금) 오후 경기도 평택구 소재 안산대학교에서(한인 총회장 목사) 3

층 AWM선교회 회의실에서 제10-4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11차 정기총회 임원회를 확정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는 공동총장 박

광철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이재철 목사의 기도에 이어 제10대 대표회장 심병용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3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공배로 이어진 임원회는 대표회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심병용 목사의 기도, 서기 박광철 목사의 회원명령, 대표회장 박광철 목사의 개회선언과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표회장 박광철 목사는 "제대로 헌신을 시작하면서 세기총이 더욱 성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지난 한해 수고한 임원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교총, 오디오북 영상 무료 배포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 제1~11권

(사)한국교회총연합회는 지난해 출간한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 제1~11권'의 오디오북 스트리밍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한교총TV에 지난 2월 15일부터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교총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사업으로 '기독교 종교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사업'을 진행하여 한국교회 선교사와의 생애인 인터뷰도, 이원팔, 최영환, 최영환, 유진, 벨, 안도 총재의 선교사 전기 시리즈를 출간하고, 올해 2차로 문준성, 황스스톡스, 말콤 번들, 윌리엄 전진, 클라레트 오웬, 유하재 총재의 인터뷰를 선정해 전기들을 출간했다.

이번 선교사 전기 시리즈(제1~11권)는 평택대학교 출판사 교수(문준성), 목원대학교 김경성 교수(황스스톡스), 연세대학교 민경배 명예교수(말콤 번들), 한신대학교 송



희장은 축사에서 "영성 회복이 교회 부흥으로, 교회 부흥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으로 이어진 것이 우리의 역사다. 이념과 학파를 떠나 교회는 소망이었고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근대문화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교회와 사회를 회복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선교사 전기 시리즈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선교사 전기 시리즈를 접할 수 있도록 오디오북 스트리밍 영상에 앞서 전자책(e-book)도 출시할 바 있다. 전자책은 한교총 공식 홈페이지(www.ucck.org)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선교사 전기 시리즈 제1~11권 오디오북 스트리밍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교총TV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종섭 해화경찰서장 한교연 내방

송태섭 대표회장, "좋은 관계 속에 협력하자"

해화경찰서장 박종섭 총장은 지난 2월 16일 오후 1시 인사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 송태섭 목사 등 임원들과 자리를 나눴다.

박 서장은 "열조 해화사에 부합해 인근의 주요 기독교계를 찾아 인사를 드리고 있다"며 "한국교회 연합의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동안 해화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안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다"고 인사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해화서 관내인 종로5가에는 한국교회 주요 기관 단체가 집중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다종교 분구로 해화서를 찾은 일도 간혹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해화서의 '해화'란 이름이 조선시대 임금이 일반 백성이 4 대부 출신이 못하는 것을 인신제에 여겨 백성들이 만나

수 있는 문물 만들고 '해화문'이라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안다"며 "이 이름이 부끄러워 가지지 않게 지역민을 위한 협력하는 해화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걸 사명으로 안다"며 "오늘 대만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의 기도와 애국심이 그 밑거름이 됐다"는 걸 공경지도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서장은 한교연 내방에 문석진 안보의사과장 박종섭 정보과장, 정동진 정보관이 배석했으며, 한교연에서는 상임회장 김명근 목사, 이영환 장로, 하계 안종수 장로, 사무총장 최우성 목사가 배석했다.

박종섭 해화경찰서장, 한기총 내방

정서영 대표회장, "한기총 정상화 시킬 터"

해화경찰서장 박종섭 총장은 지난 2월 17일(금) 오전 11시 인사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를 내방하고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기총 목사, 이자리는 해화서 문석진 정보과장, 박종섭 정보과장, 조종호 팀장과 정동진 경위, 한기총 김명근 사무총장, 이영환 비서관이 배석했다.

박 서장은 "경찰이 지향하는 업무는 국민을 위하고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종교적인 방향성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관내에 종교 기관이 많이 있는데, 연계를 따져보니 고종 때 왕실에서 정동지사를 사용하게 위해서 왕실에게 내준 것이 이곳이고, 그러다 보니 관내에 종교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연합기관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기총에 없었다. 그러나 한기총의 문제로 여러 연합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다시 정상화를 시켜 한기총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일할 것이다. 여러 연합기관의 대표를 했지만 어디서도 불완전하지 않다. 잘 소통하고 서로 지고하고 나서 통합이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눔과기쁨, 나영수 8대 이사장 취임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기쁨 되도록 힘쓰겠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기쁨 제8대 이사장에 나영수 목사가 취임예배가 지난 2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이사장에 김영호·조순호 목사가 취임했다.

1부 예배는 이사 이준영 목사의 인도로 나눔과기쁨 총재부부장 김원진 목사의 대표 기도, 박종호 목사(한양대학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성령강령 후 권택진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선포했다.

이후 나눔과기쁨 이사 조순호 목사의 인도로 튀르키예·시리아 위기 특별헌금 후 찬양과 이사 김정성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 취임식에서는 나눔과기쁨 김용태 사무총장의 사회로 내빈 소개에 이어 나눔과기



쁨 이규자 이사, 한기총 배선영장군(가칭) 회 대표가 나 이사장에게 헌배 및 축배를 올렸다.

나영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는 이것의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저와 부이사

단 이사들, 전도의 본부장, 모든 직원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기쁨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취임을 전한 송경림 목사(하미펠리 대)는 "공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것 없다"라는 말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 이사장님을 4년간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한 한도 안 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나눔과기쁨이 펼쳐갈 세상은 공정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외에도 이일림 목사(통일성명교회 대표)의 축사, 박순호 나눔과기쁨 명예이사장, 이원환 대한민국국방위원회장 등이 격려사를 전했다. 소포로, 이리키 문의 축하승 이후 폐회했다.

민복부협,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최환순 대표회장, "성령님 의지해 민족복음화에 힘쓰 터"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총재 우광순 목사)는 지난 2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안원구 신원동 소재 대영교회에서 회합 및 동역자들을 위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는 사무총장 박종복 목사의 사회로 최환순 대표회장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령강령, 최환순 목사의 특송,

총재 우광순 목사의 고전 4: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광순 목사는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란 성령님이 주신 사명을 감수해 순종하는 사람"이라며, "오늘 취임하는 최환순 목사도 이를 명심해 협회비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전 예배는 회계 전성실 목사의 헌금 기도, 예능단장 김혜란 목사의 헌금특송, 부총재 이원환 목사의 민족부흥 연합보고 후 대표회장 취임과 증정, 직전 대표회장에게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산문대표회장 최환순 목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전체 지도자들의 성령의 믿음을 본받아 소망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축하할 격려사에는 증정회장 김명호 목사·홍화선 목사, 경인교회 나영수 목사의 축사, 명예회장 김용태 목사·함동경장로회 경인교회장 김수자 목사의 격려사, 부총재 최대선 목사·정영석 목사·최길종 목사의 헌금 순으로 진행되며, 사무총장 박종복 목사의 광고, 대표회장 최환순 목사에게 꽃다발 증정 후 총재 우광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생명의 말씀



백영자 목사

- 교단 재무
- 전라지방회장
- 여교역자회장
- 녹동순복음교회 담임

‘할리우드’는 ‘일백백인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와 ‘한 번 순간’이라는 뜻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로 응답의 때, 심판의 때, 재림의 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1. 무슨 문제이든지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3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돈이 떨어졌으면 돈이 떨어졌다고 기도하면 됩니다. 일부러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내 아버지니가 용도 달라고 요구하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나이란 장래는 내일을 고쳐 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은 내 백성이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육성과 내 간구

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안에 기도하리이다”(사 116:1-2)고 했습니다. 하스기아 왕은 눈물로 기도하여 죽음의 때를 15년을 연장시켰습니다. 기도는 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확신이 오서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담대해질 때까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처럼 한 번 기도해도 되고, 완성이 있는 한 반복처럼 밤낮 불의한 재판을 찾아가서 부르짖듯이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급되면 마음에 확신과 기쁨, 평안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가서 수전에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구제를 어찌고 왕에게 나아갈리니 죽으리라 죽으리니 하리라”(마 4:16) 이렇게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 하만으로 부터 민족을 살렸습니. 기도는 때를 움직입니다.

2. 무슨 응답이든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4절).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었다고 말씀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다만 그런 줄로 알고 믿었습니다. 열사바베포는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눅 1:45)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심은 전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었다고 말씀하시니 마리아를 시험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하신지 그대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사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전을 내게서 지나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9)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쥐고 내 뜻을 통

때를 움직이는 사람

요 2:1~11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지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때를 움직입니다.

3.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5절).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는 말씀은 말씀대로 믿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우회하지 않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민 23:19)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요 15:7)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다 보면 나를 찌르거나 감동시키는 한 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

인들처럼 떨리면 회개하고 무디아처럼 감동되면 순종하면 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다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안 되는 이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은 모든 것이 안됩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만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높아지고 성경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대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년의 정육에 사로잡힌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육체는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세마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굳음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행 3:6-8). 평생 구걸하며 살아왔던 앉은뱅이가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 순식간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순종은 때를 움직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믿고 순종해서 때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정

수석부회장에 최병철 장로 선임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이하 한국CBMC, 중앙회장 김영구)는 지난 2월 17일(금) 오후 서울 서초구 다계이로호텔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한 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에 최병철 중앙부회장(CBMC 행사위원장, 광주 거주)이고 회 장로, 유·고(인명 대표)를 선임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에 김정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이수연) 김정오 이사장 제22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신임 이사장 취임식은 지난 2월 20일(월) 서울 시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본부 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비롯해 홀트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 형식으로 열렸다. 김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아대척 홍보대사 윤은혜 위촉



국제 구호 계발 NGO 희망연구 기아대척(회장 유원석)은 지난 2월 20일(화) 기아대척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배우 윤은

혜를 기아대척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아대척 홍보대사는 국내외 빈곤 종식을 위한 기아대척의 활동에 동참하며 이웃에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원석 기아대척 회장 KCOC 회장으로



국제 구호 계발 NGO 희망연구 기아대척은 유원석 기아대척 회장이 국제계발협의회 회장(KCOC)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KCOC는 희망연구 기아대척 등 세계 여러 분자유역과 국제지역에서 국제 구호계발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140여 개 NGO 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국제계발협력 민간단체 협의체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동성 간 동거를 결혼으로 볼 때 나타난 왜곡된 판결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형집1-3부(이승한 심판장)가 동성간 동거(자신들은 결혼했다고 함)하는 사람들을 결혼에 준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한다.

사건은 동성간 동거하는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1심 재판에서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원고 패소를 내렸으나,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반박한 것이다. 즉, 원고들이 주장한 기를 사실관계 배우자(이성간)에 대해서는 지극히 기피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하여도 법원이 법의 규정 안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헌법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 판사들의 자기 주장에 의하여 법을 시험하려는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판사(判事)들은 사회운동가(가) 아니다. 처벌을 해준다면 여학생을 조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헌법 법률과 헌법을 뒤집어놓은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판사는 독재자·독보적·독재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도 법치주의하에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는 철저한 3권분립에 의하여 작동되며,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은 법의 테두리에서 불변부동(不變不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동성 결합이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닌데(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음), 이를 결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고등법원 법관들의 의식과 수준을 의심하게 된다. 판사는 판결로 그리스도와 수종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정이 얼마나 법에 의하여 조율(調和)하게 투과되었느냐하는

것이 평가된다.

그런데 이런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따로 판결(변복)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 한다. 재판장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음(이유도)이다(사실상).

참고적으로 우리 헌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양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되어 있다. 또 대법원에서도 이혼 결의 혼인만

을 하려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 자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과 상위 법률 기관의 판결과 결정이 엄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판사들은 판사의 자의에 의하여 대하어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법의 잣대로 냉정하고 엄격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들의 책무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월권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간다면 이런 판사들은 법률을 벗어난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번에 법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면 국가와 국민 전체가 불행해지고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그런데도 헌법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리는 강심장(?)법관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1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1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1) 일 시 : 2023년 3월 16일(목) 오후 1시(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반게로 참석여부를 2월 24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병 목
총 무 목사 정 진 군

경찰가족복음화와 국민안전위해 기도

교경중앙협 대표회장 배진기 목사 이임, 이기용 목사 선출



제50차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 정기총회 및 '나만의 평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기도가 지난 2월 27일(월) 오전 서울 AWC컨벤션 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어 50대 대표회장 배진기 목사(신길교회)가 선출되어 경찰가족복음화와 국민안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총회는 대표회장 배진기 목사의 사회로 양영성 목사의 개회기도, 서기 김바울 목사의 회임절명 후 감사·결산·사업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임원선거와 신규임원 인사,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안전건의, 회칙 채택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어 열린 기도회는 사무총장 박노아 목사의 사회로 내빈소개, 대통령과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경찰가족 양재철 목사, '경찰청장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임원공동회장 양영성 목사, '경찰청장과 교경 발전을 위하여' (공동회장 신철모 목사)가 각각 주례를 인도했다.

계속해서 공동회장 최진기 목사의 성경봉독, 신길교회 중창단의 특송, 대표회장 배진기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배 목사는 영 4:1-3 말씀을 본문으로 '가치(價値)가치(價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순수하고 옳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고 거부되는 일에도 배타적이고 부정적이지 않다"는 주제를 따라가며 "동행하는 '가치'가치(價値)'의 자세로 같이 가는 삶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설교 후 치안총수인 윤호근 경찰청장의 감사인사말과 인사말이 이어졌다. 윤호근 경찰청장(차장대독)은 "협의회에서 경찰 임무를 지원해 주시고, 특히 많은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 유가족 분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안전과 질서 확보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기치처럼 확립해 최선을 다하며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50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용 목사는 "경찰조직과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미증후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주어진 임기 동안 경찰가족의 영혼구원과 교경중앙협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총회장 김주원 목사의 축사, 36대 대표회장 이상은 목사의 격려사 등이 있었으며 박노아 목사의 경과보고 및 광고, 33대 대표회장 이재환 목사의 축사로 '나만의 평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기도가 마무리되었다.

부산신학교 제9회 졸업감사예배 드려

부산지방회 월례회



부산신학교는 지난 2월 20일(월) 오전 11시 세운교회 내 신학교에서 제9회 졸업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졸업감사예배는 신학교 교무처장 서미근 목사(순복음대진교회)의 사회로 교수 한순남 목사(순복음대진교회)의 대표기도, 학생 정기영 목사(순복음대진교회)의 영 1:17-23 말씀을 본문으로 한 단락을 찬양케 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설교, 졸업생 서선우 학우와 김갑원 학우에게 졸업장과 상장 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교수 오영덕 목사(순복음대진교회)의 축사와 교수 조경희 목사(기성복음교회)의 권리와 졸업생 대표 서선우 학우의 눈물의 감사 인사, 교수 정경영 목사의 축사로 졸업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책과 국가적 역할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헌신, 지식, 양심 등의 토대적, 경제 및 건장한 체질, 소성된 영성이 결집된 상황입니다. 세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신로 지나치면 천천히 읽으십시오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청계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시대대장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목양신론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12677-9936
■ 광고문의 021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매일성물집

1 승상신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알레르기 성향약제 각종 알의 예방(위생법)
(*고려대학교 순음성 교수님 양곡으로 세계특허함)

2)물리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각막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스롤린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갈락시 : 홍화씨의 2배, 열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7)식이섬유 : 타식스(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한양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지분,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을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적임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괴, 암, 무임아, 마늘처럼 천년초를 씹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2023년 제2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2023년 제2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2월 13일(월) 오전 7시 아산시 배방읍 순천향로에 소재한 생명성동전교회(담임 박귀환 목사, 상임회장 장기식 목사)에서 개최하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 전쟁의 해소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1부 예배에는 상임회장 장기식 목사(아산동산교회)의 사회로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율령한 목사(아산동산교회)의 대표기도, 상임회장 장기식 목사(아산동산교회)의 성경봉독,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생명성동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귀환 목사는 말 1:6-11 말씀을 본문으로 “지도자의 청결과 애국심”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제 이 시대 민족복음화운동 본부의 지도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둘째, 환개와 잡색을 받아들이며,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성도들을 돌아보아 코로 믿는 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때에 성전문이 닫히지 않도록 영적으로 각성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모든 목사님들이 경각심으로 가지고 목회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봉헌한 후에 본회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의 순서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순서는 국정현안에 대한 기도 요청으로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아산성결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국정 현안에 대한 설교로 배탄국회가 아닌 민생을 위한 토론이 열릴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동령과 일본의 협상 타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고 함께 아산시에 4월 재발병이 완공되면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재발이 체계적으로 치료될 것이며, 전안아산고속도로

준공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또한 가스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정부가 행정적으로 서비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이어진 3부 기도 순서로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아산성결교회)의 사회로 기도회를

가졌다. 1)민족복음화와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태민교회), 2)북극에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부회장 구자범 목사(배방감리교회), 3)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하여 후원회총무 박해서 장로(배방감리교회) 4)아산시 400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전병환 목사(보이스교회) 순으로 주제별 기

도를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사무국장 이진희 목사(유년의제교회)의 광고에 이어 기념 촬영이 있는 후, 생명성동전교회에서 준비한 조찬점사로 이동하여 조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지므로 제2차 조찬기도회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다.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

대표고문

진동웅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사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박귀

독거어르신 뇌파측정·미용복지서비스

한국뇌과학연구소, 바른정(正)한방병원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신한대학교 최에스터 교수(뇌·뉴티소시아이더연구소장)가 주관하여 독거어르신 뇌파측정 및 미용복지서비스 육구조사원 위한 상담이 한국뇌과학연구소(소장 김충식)와 함께 바른정(正)한방병원(원장 하지환)에서 2월 21일 오전 10시~16시까지 의정부지역 거주 65~75세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4회 실시, 수혜자 80명) 진행되었다.

협력기관인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숙경), 대한노인회 의정부지부(회장 김경두), 경기북부지방립센터(센터장 김남주)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이날 어르신들에게 담은클리브(대표 신희정)에서 작품을 제작하여 선물하였고, 신한대학교 경기북부개발연구원(원장 류정근)에서 마음으로 쓰는 글자의 개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한국건강보존공단의 정부지자 홍진호 지사장의 축사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쁘고 흥분하기 위해서 시민공감대표 고재은, 의정부시복지재단(이사장 허형영), 복지TV 경기방송(정운선 지장), 한복신문(대표 김기현),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협회(회장 박종섭)가 참여했다.



권오섭 회장, 아신대에 1억 원 전달

교육, 연구 및 학생지원 등 학교 발전기금

아신대학교(총장 정종원/이하 아신대)는 글로벌 마스터 브랜드 미디어로 유명한 엘엔피코(스케티)주) 권오섭 회장이 교육, 연구 및 학생지원 등을 위한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2월 20일 밝혔다.

권오섭 회장은 2020년부터 '메디칼학제'를 통해 꾸준히 아신대를 후원하고 있으며 권 회장이 기탁한

발전기금은 지금까지 총 4억 원에 달한다.

마스크팩 브랜드평판 1위 메디칼은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마스크팩과 함께 다양한 스즈케이 제품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전 세계 44개국 50여개 국가에 판매된 마스크팩은 최근 일본에서도 누적 판매량 30만 장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빛을 나눈 엄마의 숭고한 사랑”

사랑 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각막기증 2명에게 새 빛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이하 본부)는 지난 1월 30일,故 이숙경 집사(67, 여)가 세상을 떠나며 각막기증을 통해 시각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 빛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낸 고인의 딸인 지원 씨(여)는 “병원 입마가 기증하신 각막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사히 이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엄마의 눈을 통해 아들 속에 있던 누나가 빛을 보았다고 하니, 하늘에 계신 엄마가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고인을 떠나보낸 후 매일 저녁 애매에 참여하고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엄마는 순채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저는 게아가는 거고, 남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일찍 혼자서 된 이숙경 집사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지열하게 살아온 가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장 도우미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루 끼니를 잡다시피도 가까이 도울 만큼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여러



한 고인의 따뜻한 성정은 2016년 입시원 씨가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임 씨는 고인이 임박처럼 죽어서 홀로 돌아가는 대신 아들을 위해 생명을 나누어 한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이월 시한부 선고에도 마지막까지 나누는 삶을 열망했던 고 이숙경 집사는 지난 1월 죽음에 앞질렀음을 직감하며 가족들을 불러 놓고 각막기증을 유언으로 남기며 생애를 마감한 뜻을 다시 한번 확고히 전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30일 오후

집안의 고통으로 할 수 없었던 이 집사의 호흡이 일순간 안정적으로 바뀌더니 이내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 병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엄마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엄마가 그토록 소망하던 해를 만난 게 틀림없었어요” 2월 1일, 발인예배에 참석한 송세희 집요학 목사는 “이 집사님처럼 짧은 삶을 살아가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며 고인에 대한 애도의 인사를 전했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편지(이 편에서 해나님을 위해 살다가 엄마를 만나면 천국에 오면 그때에도 엄마와 딸로 살자)를 읽고 또 읽는다는 딸 입시원 씨는 엄마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감사함을 배웠다고 말했다.

안개가 걷힌 시 신장기증인이 되어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는 임 씨는 “제 생이 언제 다할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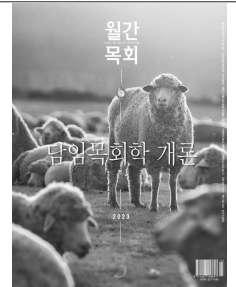
‘월간목회’ 3월호

‘담임목회를 위한 준비’의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교단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목사’의 직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목회자가 목사안수 이후 곧바로 담임목회의 모든 일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수의 목회자는 개척으로 홀로서기 하기보다 가정교회와 부교파로서 이후 담임목회를 위한 배움과 훈련의 시간을 갖는다. 이 배움과 훈련은 목회자 각인을 위한 부서의 교육으로 인해 하나의 길

로 통일되지 않고, 그 시작과 끝도 정해진 바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담임목회의 길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또한 바른 담임목회의 길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담임목회에 관한 개론적 고찰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에 ‘월간목회’ 3월호에서는 담임목회와 관련한 여러 경험과 고전들을 담임목회학이라는 명명하에 아울러 살펴보고 그로부터 중점된 담임목회를 위한 준비의 판단 기준을 모색해 본다.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신복을교회,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원장

위드코로나 시대 예수향기의 작은 꽃송이들

전도는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교회의 전통이며 사도들의 복음의 계승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와 과거나 미래 교회에 대한 대안이라는 말이다. 부언하면,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풍성한 자기표현이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고백양에를 말한다.

예루살렘 인간의 사랑함이 극에 이르면 죄의 범위와 깊이와 속도는 복음의 긴급성과 절박함을 요청한 바 있다. 바울을 긴급소환하여 볼 때 그가 복음의 능력에 기하여 종말론적 구원론에 적합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른바 인류에게 불행으로 인류의 생존과 더 나아가 지구촌의 보존은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신비이며 전도는 바로 생명의 신비이다. 결국 단언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이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렘21:3)

한편 가족세전도 전도의 장에서 박영수 목사는 주후 2023년 2월 현재 예수교대한교회의 성령의 경건양자 방화 소수 ‘평내신복을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특히 분주한 외부 초청 집회 인도 중에도 가족세전도 캠퍼스를 통해 한국교회 내외의 교회성장의 복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의 탁월한 성령의 능력 전도자이다. 그는 지금까지 전한 시간에 따라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동 원에서 가족세전도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족세전도 세미나는 금년 현재 22기에 걸쳐 1만 2천여 명이 수료한 바 있다.

이러한 세전도는 신학적 ‘문제전도’, 논리적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전도’, 전도현장 교역이 있는 ‘생명전도’, 개척교회와 부흥되는 비전전도 등 4가지 특성을 통해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들을 겸손히 섬기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초석을 위한 한 일의 ‘작은 조약돌’의 책임자로 늘 준비되기를 일하고 있다.

사실, 작금의 현실은 제3차 문화산업혁명을 풍광중이다. 한편 지금까지 박영수 목사는 한국교회의 처한 현실

에서 다음 세대와 영혼 구원을 고민했다. 이를테면 한국교회의 자정(自正)을 위해 삼아 복음 현장을 누렸던 사도행전적 신념(新念)과 행전(行傳, Acts)의 주(主)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과 수년 전 혹독했던 세계적 질병재난 속으로만 주(主)의 은사를 이들을(신)을 포용의 불타는 한산은 광풍의 코로나, 변형 오미크론전도 피해갈 수 밖에 없었으니! 이미 수백 년 전의 순교자로서 빛나는 발 걸음이다.

비로소 감추어진 어둠속에 빛으로서 마치 사도시대 죽음의 공포를 마주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이만바 사도들이 이끌었던, 오늘 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마주해서 말씀의 생명의, 생명의 신의와, 신의의 문화의를 영적으로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로 보여주었던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와 바울과 신의를 연성케 하는 동행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인 한 복을 담담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한 한국교회 21세기 위드코로나시대 ‘사도행전적, 현대판 ‘COVID 행전’과 예수향기의 작은 꽃송이들(전도자)들의 주역(主役)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감히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 71:18 중략)

“우리가 이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숨겨져 있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시 78:4)

비전교회 홍중국 목사
성경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Ph.D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전도 대표 총재

문화선교회 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신복을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031)592-1691, 010)3730-2573



모두가 하나되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자!

2023 부활절 퍼레이드

2023. 4. 9. (주일) Live 생중계

일시	1부 퍼레이드 오후 2시
	2부 기념음악회 오후 5시 30분
장소	광화문광장~서울광장

CHAPTER 1
퍼레이드 행렬 참가단체(교회) 및 개인(가족) 모집!

CHAPTER 2
퍼레이드 자원봉사자 모집!

CHAPTER 3
퍼레이드 협찬 모집!

02-6333-1127
@Bible:k-easter.com

주최 | 한국교회연합

주관 | 기독교TV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믿음으로 세바 같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호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고난이 살게 합니다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라고 역사를 단순하게 정의한 역사가 토인 비(Arnold Toynbee)가 즐겨한 이야기입니다.

영국 북쪽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북쪽 바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런던까지 청어를 살려서 싱싱한 청어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어부가 경험과 지혜를 다해서 관료제도 런던에 도착해 보면 청어들은 죽었거나 거의 죽어서 상품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값을 못 받아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부 중에서 한 어부만은 언제나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산 채로 런던 시장에 가지고 와서 좋은 값을 받았습니니다. 동료 어부들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도 비밀이라며 절대 기꺼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료 어부들의 끈질긴 압력에 못 이겨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비결이야?”

어부들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는 데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어부가 설명했습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는 것은 맞는데 그 메기가 청어 한두 마리만 잡아먹지 그 대신에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잡아 먹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을 다니지, 그런데 런던에 도착하면 청어들은 여전히 살아서 도망 다니고 있지, 그게 청어가 살아 있도록 하는 비결이야.”

메기로 인하여 청어들이 고난받는 것 같으나 살아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 분명하지만 고난에 대한 응전은 그 고난을 버서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나?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그는 잔송 할지니라” (약 5:13)

초대시

전해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아멘으로 받은 만큼...



성경말씀이

허무맹랑한 옛날이야기처럼

의미 없게 들리던 때가 있었다.

까만 성경책을 보면 나를 묶어

놓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던 때가 있었다.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인 때가 있었다.

나와 상관없음이 당연하다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성경말씀은

나의 가난 길을 멈추게 하였고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신기했던 그 사람 되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

성경말씀은

아래로 향해 가던 사망 길에서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열어 보이고

나옴으로 받은 만큼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성경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젊은 시절에

말씀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는

한 사람을 보며 무엇일까? 저 모습은...

신기해 바라보던 때가 있었다.

잠 15:24, 시 23:3 말씀을 묵상하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길로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의 마음을 적는다.

홈페이지: www.ucl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연합성 사이버신학연구원 설립은 사명 있는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턴이었으며 고교를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 연한	지원 자격
신학과 (신앙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양학에이 있는 자 3. 신앙결례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학교에 입학한 후 2년 이상 재학한 자 3. 이수한 학점의 2배 이상 학점

2. 제출서류(1종)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 증명서 - 원장증
- ④ 주둔등록증(2학기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사용지 2매 이내)
- ⑥ 편입생만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1종)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 증명서 - 원장증
- ④ 주둔등록증(2학기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사용지 2매 이내)
- ⑥ 편입생만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접수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 계좌입금: 국민은행 081701-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로22나길 8
(제6층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동종종교대학원 진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신학사상 등 교수로 임명(6학기) 가능합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l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l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및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교회의 교회에 이르기 위한 복음의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목회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발음준비, 성경통독
- 목장일일
- 은 세상 편에게 복음전파

문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로22나길 8 (영등포동5가 90-3)
-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90)7205
- 홈페이지 : www.ucls.org
- e-mail: ucl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 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inister of Ministry)	3학년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과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과 졸업자(신학) ● 타 교단 목회자로써 본 교단목회학과 의 응시 자격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접수: 수시 ② 원서교부: 본 대학원 행정처에 대학원 홈페이지

4. 전형료

① 전형료: 30,000원 ② 계좌입금: 국민은행 081701-04-005354(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둔등록증(2학기 이내 발급)
- 타 교단 목회자로써 본 교단목회학과 의 응시 자격을 받은 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턴)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회자로 종사자를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일요일도 열.
- 원수인 사역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경론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학과 탈락 이후에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ls.org 에서 출석 신청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사설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철학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이다. 그런데 만일 ‘고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 훗날 실제로 데카르트에 의해서 ‘고로’를 빼버리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로 바뀌었다. 예 ‘고로’가 들어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가 되고 만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없애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고로’가 가져온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이것을 우리는 언어의 유괴라고 부른다. 그런데 현 한국 정치판을 지켜볼 때 들어보면 어찌나 언어의 유괴가 많은지 모른다. ‘야’ ‘다르고’ ‘야’ ‘다르다’는 말이 실려나 난다. 지금 한국의 정치판을 생각 자체가 필요 없는지도 모르다. 생각이 있는 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 않는다. 고로 존재한다’로 말이다. 논란 뜨면 온통 싸움판이고 말 같지도 않은 것들로 사리를 들고, 가만다 보면 가만히 없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지경이다. 사람 소리를 듣고, 개소리인지를 구분 못할 지경이다.

유괴작가 장 도 리명령의 ‘누대와 어린양’이라는 작품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담과 테아는 지일 바 안 되는 어린양이 물을 먹고 있었다. 그러자 누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린양이 내가 바실 물을 마시고 있어 리고 하를 냈다. 어린양은 누대에게 ‘누대는 상류에 계시고 저는 하류에 있는데요’라고 대답했다. 그 누대가 ‘저년에 날 육하고 달나지 않아? 어린양이 대답하기를 “그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나 누대는 그럼 네 형이 한 것이구나. 그대도 너를 잡아먹어야겠다’고 했다.

이 누대처럼 횡단한 소를 놓아놓으려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이 정치판에 수도 없이 많다. 거짓으로 되어도 소용없다. 반성도 사과조차도 없다. 자기반성이란 말이 없다. 이렇게 누대와 같은 소리가 비로소 가소라다. 한국의 정치판에 이런 개소리가 정통을 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안녕한가?는 의문이 남는다. 다는 오조음이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어느 시나리오 존재하는 극단주의자와 선동가 있어서 대중의 인기를 얻었을 때 그들을 고립시키고 무력화 하는 것은 정치 엘리트 집단인 정당의 역할이다’라고 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도 정당이 민주주의 분지기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선동가들이 가진 대중적 인기에 현혹과 결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아닌가라는 말이다.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나는 부정할 돈을 한 톨도 취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제이아명 대표를 구속하려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 때 한지 대통령을 구속하고 퇴임 대통령을 구속하는 일은 유례가 있었던 일인가.

자신들은 현직 대통령과 퇴임대통령 두 분을 감옥에 처 넣었는데...아명 대표의 사안이 현직 대통령보다 더 위위인가? 내로남불도 아닌 내로남불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한 말도 다 있어버린 듯하다. 하긴 아침에 한 말 지켜봐도 아무 뒤집어서 흔든 사람지만.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구속되는 나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가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수감 재워서 구치소로 보내지고 누가 말했다?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에는 정치 탄압이요, 정적 제거라고 하고 말하면 형을 정당한 형에 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차마 표현 못할 생약을 하고 온갖 비리는 모두 부장해버리고, 잘못했던 사람도 불려서 안는 바 없다고 하고, 이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정당의 대표로 뽑고, 한 국가의 지도자로 뽑으려는 일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2018년 김영철도 채용배리도 검찰에서 권 모 의원 구속영장 신청이 나오자 권 모 의원의 국회 회기를 열지 말라고 하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발원해 출두하여 영장심장 검사를 받지 않았다. 법원에서 형의가 없다고 기각하고, 예 이재명 대표는 권 모 의원이 된 못는가? 왜 이것은 의원들을 동원하고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정부통령을 하는가?

나서 영장심장 검사를 받으면 간단하고 깔끔한 것을 죄 없다고, 소만 불일 게야 권 모 의원처럼 하면 될 일을, 참 지지분해기만 해 보인다. 정상이 아니다. 더 이상 국민은 아무 말이나 아무 것이나 통하는 게 돼버렸다. 아니, 정통성이 무너진 곳에 한정이 찾아온다. ‘기산지’

“오의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지코다” (잠 5:24)

“오의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지코다” (잠 5:24)